

# 코미디-액션-애니-멜로 정해년 극장가, 내가 깨운다

## 새해맞이 이 영화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극장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태풍’ ‘청연’ ‘왕의 남자’ 등 대작이 화제를 모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급 규모의 영화가 대거 개봉중이다. 볼 만한 영화를 소개한다.

조폭 마누라3

‘조폭 코미디’의 신화를 열었던 시리즈물로 1, 2편의 주인공이었던 신은경 대신 홍콩 배우 서기가 주연을 맡았다. 홍콩 최고의 명문 조직 폭력배 보스의 외동딸이 신변 안전을 위해 한국에 피신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액션물. 이범수와 현영 등 코믹 연기 대가들이 대거 합류했으며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통해 인기를 모은 오지호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흥행에 성공했던 시리즈 1편의 감독 조진규가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15세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삼무·하남), 엔터, 프리미어스제일, CGV(삼무·하남), 하미, 씨너스 전대>

마음의 고로워



용화 감독 작품으로 김 아중과 주진모가 열연했다. 특히 95kg에 달하는 뚱보로 분장하며 열연한 김 아중에게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뜬 할 체격을 가진 주인공 한나는 신이 내린 목소리 덕에 '얼굴 없는 가수'로 일 한다. 사랑에 빠진 그녀는 어느날 목숨을 건 성형 수술을 감행하고 169cm, 48kg. 뾰샵으로 그려도 힘든 완벽한 S라인 몸매의 소유자 '제니'로 거듭난다. <12세 관립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엔터, 프리미스제일, CGV(상무·하남), 하미, 씨너스 전대>

박물관이 살아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용 영화로 개봉 첫주 흥행 1위를 차지한 작품이다. 엉뚱한 사업아이템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래리 멜리(벤 스틸러)는 자연사 박물관 야간 경비원에 취업한다. “아무것도 내보내지 말라”는 선배 경비원의 충고를 들은 근무 첫날 밤, 래리는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완벽하게 복원된(?) 공룡과 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할리우드의 첨단 기술을 만끽할 수 있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엔터, 프리미어스제익 CGV(상무·하남) 하마 씨네스 전대>

로마티 훌리데이

2003년 인기를 모았던 ‘러브 액추얼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쥬드 로, 카메론 디아즈, 케이트 윈슬렛 등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가 그만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의 실패를 맛본 로스엔젤레스의 영화제작자 아만다와 영국 시골의 칼럼니스트 아이리스가 상대방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비아(삼무·하남), CGV(삼무·하남), 하미, 씨너스 전대〉

007 카지노 로얄

1963년 ‘007 닉터 노’(우리나라 개봉명 ‘007 살인번호’)를 시작으로 43년간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007 시리즈의 21번째 이야기다. 새로운 007 요원(다니엘 크레이그)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섹시한 본드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적이고 신비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본드 걸(에바 그린)의 만남이 관심을 모은 작품. 007의 원작자 이언 플레밍이 쓴 15권의 소설 중 첫번째 책을 영화로 만들었으며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작에 충실하게’를 제작 모토로 삼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엔터, 프리미스제일, CGV(상무·하남), 하미, 씨너스 전대>

중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뮤협 판타지 대작으로 김태희와 정우성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 총 1천900여컷 중 750여컷에 CG를 사용했을 만큼 정교한 화면 쳐리에 공을 들였으며, 죽은 영훈이 49일간 머무는 ‘죽전’이라는 고신의 생계인 험걸원 애선은 살피하고 있다.

‘중천’이라는 가상의 세계와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다. 기대와 달리 흥행에서는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주인공 정우성과 원귀들의 싸움 장면 등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마스제일, CGV(상무·전북·전남·부산·경기·경북)·

올드미스 디어키 그작파

KBS TV를 통해 방영돼 많은 인기를 모았던 동명의 시트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출연 배우와 PD, 작가들이 그대로 옮겨와 영화를 만들었다. 키스 한지 5년이 넘은 32세 노처녀 최미자와 연하남 지PD의 알콩달콩 사랑이 야기를 실감나게 그린 작품. 특히 미자의 할머니와 이모할머니 등 ‘할머니 3인방’의 맛깔스런 연애 이야기가 벌어져 웃음을 안겨준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엔터, CGV(상무·하남), 희미, 씨네수 전대>

해리 퍼트

최초로 선보이는 팝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춤추고 노래하는 펭귄들의 모습과 함께 로빈 윌리엄스, 니콜 키드먼, 휴 잭맨 등 화려한 출연진의 더빙이 돋보인다. 우리말 더빙판에서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다. ‘Somebody to love’ 등 친숙한 팝명곡을 만날 수 있으며 실사처럼 묘사한 남극의 자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액션들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기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삼성·한나), CGV(삼성·한나), 흥미, 씨네스 전대>

대통령이 주으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 부시가 등장하는 자료화면과 감독이 설정한 장면을 합성, 실사처럼 꾸몄다. 1년이 넘는 자료 수집기간을 통해 부시의 손동작 등 세세한 행동, 의상 스타일 등을 분석해 재연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12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he image is a vibrant, multi-colored advertisement for an online store. At the top, there's a blue banner with yellow Korean text: '인터넷 가입 시 무료증정!' (Free gift upon online registration!). Below this, three separate boxes feature product names in red and yellow: 'G L 파워콤' (Powercom), '아니로통신' (Aniro Telecom), and 'T 가디언' (Guardian). The main body of the ad is white with a decorative gold border. In the center, there's a large, stylized yellow and red graphic containing the text '인터넷 무료' (Free internet) and '인터넷 구글' (Google). To the right, the text '렌탈 모니터 소모품 포함' (Includes rental monitor and consumables) is displayed. Below this, there's a grid of small, blurry images showing various products like monitors, keyboards, and other office equipment. At the bottom, a dark blue banner contains the text '광주전남 가입전화 1600-7234' (Gwangju-Jeonnam registration phone number 1600-7234).